

스포츠

10

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투르 드 코리아 2018' 개막 | 오늘 군산서 스타트...5일간의 대장정

역대급 난코스...엘로 저지의 주인은 누구?

산악 위주 코스 외국 선수들에 유리 포차토·오베치킨 등 강력 우승후보 지난해 우승자 민경호, 2연패 도전

국내 유일의 국제도로사이클대회 '투르 드 코리아 2018'이 30일 전북 군산을 출발하며 대장정을 시작한다.

투르 드 코리아는 올해로 12회째를 맞는데 역대 가장 어려운 코스라는 게 선수들과 코칭스태프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평지에 강점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산악 위주로 구성된 올해 대회는 외국 선수들에게 보다 유리한 코스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한국 선수 중에도 엘로 저지(개인종합 1위)에 도전할 만한 선수가 여럿 된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 선수 최초로 국제사이클연맹(UCI) 2.1등급 대회에서 챔피언이 된 민경호(22·서울시청)가 대표 주자다.

민경호는 29일 군산 리버힐 관광호텔에서 열린 대회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우승 후 많은 분들이 '엘로 저지'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로 불러주셨다. 좋은 선수들이 많이 출전하는 만큼 2연패가 쉬운 건 아니겠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팀원들과 힘을 합쳐 올해도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산악 지형에 강한 최형민(28·금산인삼철로)과 공효석(32·의정부시청)도 우승에 도전한다. 두 선수는 산악 코스에 특화되어 있는데다 경험도 풍부하다.



외국 선수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세계 최고의 도로 사이클 대회 투르 드 프랑스에서 두 차례나 구간 우승(2004년, 2007년)을 차지한 필리포 포차토(37·이탈리아)다. 이탈리아 프로 콘티

넬탈 팀 알리어 소속의 포차토는 "최근 부친상을 당해 2주 가까이 자전거를 타지 못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기회가 오면 언제든지 우승을 향해 내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포차토는 이날 기자회견



국내 유일의 국제도로사이클대회 '투르 드 코리아 2018'이 30일 대장정을 시작한다. 대회 개막 하루를 앞둔 2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에 참석한 다른 선수들로부터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로 지목받았다.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는 올해 말레이시아 대회인 투르 드 랑카위에서 개인종합 우승을 차지한 아르템 오베치킨(32·러시아)이다. 투르 드 랑카위는 2.1등급 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보다 한 단계 높은 UCI 2.HC 대회다. 게다가 투르 드 랑카위는 엄청난 산악 지형으로 악명 높다.

1988서울올림픽 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온 20개 팀 200명의 선수단이 출전한다. 20개 팀 가운데 프로 콘티넨털 팀은 4개다. 한국은 KSP(국민체육진흥공단), 서울시청, 금산인삼철로, 코레일, 가평군청, LX, 의정부시청 등 7개 팀이 출전한다. 국내 팀은 모두 콘티넨털 팀 등급이다. 이번 대회는 8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경기 국가대표 선발전도 겸하고 있다.



이예지가 오는 7월 28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XIAOMI 로드FC 048에 출전한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데뷔해 '여고생 파이터'로 이름을 알린 이예지는 이제 성인인 된 만큼 보다 성숙한 플레이를 펼치겠다는 각오다. 사진제공 | 로드FC

여고생 티 벚은 이예지 "이제는 여대생 파이터" 7월 대회...지난해 패배 설욕 다짐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예지(19·팀 제이)가 오는 7월 28일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XIAOMI 로드FC 048에 출전한다. 지난해 8월 XIAOMI 로드FC 041에서 판정 끝에 패배를 한 뒤 눈물을 보였던 이예지는 그 아쉬운 마음을 잊지 않고 더 이를 악물었다.

그는 29일 "지난해 패배 이후 한차례 경기가 무산돼 아쉬웠다. 하지만 힘들다고 변하는 건 없다고 생각했다. 다시 몸을 정비하는 데 신경을 썼다. 완벽하게 회복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기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고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프로무대에 데뷔해 '여고생 파이터'로 활약해왔던 이예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했다. 갓 성인인 된 만큼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때지만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훈련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예지는 "말로만 듣던 대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와 별반 차이는 없다. 대학생이 됐어도 운동선수인 건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상대는 일본의 아이라 미카(25·MI BURO)다. 4전 전승을 거두며 떠오르고 있는 신예다. 이예지는 "지난해 흥분하듯 했던 경기를 보면 저돌적이고 근성이 있는 선수 같더라. 결코 만만하게 볼 상대는 아닌 것 같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분석하고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팬들에게 "경기가 무산됐던 것에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다. 이제 그 아쉬움을 다 잊게 해드리겠습니다"는 말을 남겼다. 정은성 기자

배드민턴 고성현·신백철, 국제대회 길 열렸다

협회 상대 참가승인가처분신청 승소 남자 만 31세 이상 제한 규정도 정지

국제대회 출전 승인 문제를 놓고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법적다툼을 벌였던 고성현(31)과 신백철(29)이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을 넘어 항고까지 간 긴 싸움 끝에 결국 국제 대회 출전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는 최근 고성현과 신백철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내 대회참가승인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가 자 항고인인 신백철과 고성현의 손을 들어줬다. 두 선수는 지난해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협회에 수차례 출전 승인을 요청했으나 협회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자체 규정 '남자 만 31세 이상의 은퇴선수'라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두 선수의 승인



을 계속 불허해 왔다. 신백철은 만 29세이던 2016년에, 고성현은 만 29세이던 2017년에 각각 국가대표에서 은퇴했다. 당시 이용대, 김사랑 등 다수의 국가대표가 은퇴하자 협회는 2017년에 이전 '만 27세 이상'이던 규정을 '여자 만 29세, 남자 만 31세'로 개정했다. 규정에 따르면, 두 선수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배드민턴연맹(BWF) 국제대회 중 대부분의 오픈 대회는 개인자격 출전을 허용하고 있다. 당시 고

성현은 BWF가 선정한 혼합복식 세계랭킹 3위를 유지하고 있어 개인자격 출전이 가능했다. 더군다나 BWF는 랭킹 10위 내 있는 선수가 연 5회 개최되고 있는 슈퍼시리즈 프리미어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대회마다 약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해 출전이 절실했다. 그러나 연이은 협회의 승인 불가로 고성현의 해외대회 출전 길은 번번이 막혔었다. 이에 고성현과 신백철은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예지·오동현 변호사)을 통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고, 긴 공방 끝에 지난 25일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으로 선수들의 항고 이유였던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한배드민턴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제21조 제7항 나.3)의 내용 중 '그 연령은 남자 만 31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대한배드민턴협회)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막 내린 전국소년체전 참가자 모두가 챔피언

충청북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7회 전국소년체전(이하 소년체전)가 29일 충주시 탄금체육관 남중부 단체전 축구 결승 경기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나라도 튼튼"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열린 소년체전은 총 36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다. 17개 시도에서 출전한 1만2142명의 초등·중학부 선수들이 각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전국의 스포츠 꿈나무 선수들은 톨러, 사격, 양궁 역도 등의 종목에서 11건의 부별 신기록을 수립하는 등 기량을 뽐냈다. 부별 신기록 외에도 수영 종목에서 19건의 대회신기록이 수립되는 등 총 41건의 신기록이 쏟아졌다.

수영 종목의 이은지(서울 서울정목초)·남기윤(서울 은석초), 양궁 종목의 서희예(대구 대구동부초)·김제덕(경북 예천중)이 각각 대회 4관왕에 올랐다. 이밖에 도 3관왕 29명, 2관왕 61명이 탄생했다.

소년체전은 시도 간 과열경쟁을 지양하고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종합 순위를 집계하지 않고 있다. 대회 홈페이지에 각 시도별 종목 금메달 개수를 알리는 메뉴도 없어졌다. 종목별 단체 및 개인 시상식 진행됐으며 총 105명의 최우수선수(MVP)가 선정됐다.

이번 소년체전은 인천, 경남, 경북 등에서 학교 운동부가 아닌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 운동을 익힌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다. 소년체전이 그동안 엘리트 선수들만 참가하는 대회로 인식돼 왔던 점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이다.

한국여자골프, US오픈 10번째 트로피 품을까

최근 20년간 한국선수 9차례 우승 박인비·박성현·유소연 등 총출동

10번째 왕관이 태극양자들에 기다리고 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최고의 메이저대회인 US오픈(총상금 500만 달러·약 53억원)이 31일(한국시간) 미국 알라바마주 솔크리 컨트리클럽(파72·6732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US오픈은 이로부터 나타나듯 세계 골프 최강국을 자부하는 미국이 가장 먼저

앞세우는 대회다. 남자대회는 1895년, 여자대회는 1946년 창설돼 역사와 전통이 모두 깊다. 그러나 최근 20년 동안 LPGA 투어 US오픈은 미국이 아닌 한국선수들의 강세가 계속됐다. 1998년 '맨발의 투혼'으로 IMF 사태 실의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겼던 박세리의 첫 우승을 시작으로 김주연(2005년)과 박인비(2008·2013년), 지은희(2009년), 유소연(2011년), 최나연(2012년), 전인지(2015년), 박성현(2017년)이 트로피를 이어받았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20회 동안 태극양자 8명

이 무려 9번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관심은 과연 누가 10번째 US오픈 정상에 올랐는지다. 이번 대회 역시 태극양자들의 우승이 강력하게 점쳐진다. 여자골프 세계랭킹 상위 10걸 가운데 한국선수들이 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덕분이다. 6주 연속 정상을 지키고 있는 박인비를 필두로 US오픈 2연패를 노리는 4위 박성현과 6위 유소연, 7위 김인경이 총 출동한다.

여기에 지난해 아마추어 신분으로 깜짝 준우승을 거둔 최혜진과 데뷔 시즌 신인왕을 노리는 고진영, 지난해 신데렐라로 떠오른 이정은, 기나긴 준우승 징크스를 깨려는 전인지도 도전장을 내민다.